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特任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3
568-6651~2
등록일: 1988년2월19일 FAX. 568-6653
e-mail: kfpa8769@chollian.net

[月刊] 第131號

THE FISHING PORT NEWS

1998年 11月 25日(水曜日) [1]

지정어항 개발계획과 연계

소규모 항포구 체계적 개발 필요

이우재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제19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 독도영유권 문제와 신항만건설사업에 대해서 집중 거론하는 한편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투자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히 이우재 의원(한나라당·서울금천)은 "어민소득증대, 어촌개발사업은 어업의 중심인 어항개발 등과 분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항개발, 낙도보조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투자종합관리시스템 속에서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과거의 어항은 어선의 안전수용과 생산의 전진기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어항의 이러한 기능 외에도 해상물류, 교통의 중심, 어촌관광 기능 등이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어항 개발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 항포구는 실제 어촌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2천 여개에 달하는 전국 항포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정항 중심의 장기어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체계화된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우재 의원의 어항개발 및 어촌종합개발과 관련한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재 어촌을 대상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 도서벽지 지원사업 등의 투자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
△해양수산부는 전국 2천

여곳에 산재하여 있는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있는가?
△전국 소규모 항포구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에 조사 결과가 반영된 종합어항개발 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시설물의 부실화, 사업주체의 운영능력부족, 투자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해양수산개발원에서 평가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주체인 어촌계 주민들과 시·군 담당공무원 등의 의지와 사업내용 인식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발원 연구과제 중 이들 사업주체를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으면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손정식 회장, 자민련 정책위원으로 위촉

박태준 자유민주연합 총재는 지난 10월 29일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을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농림해양수산분과위원으로 위촉했다.

손정식 회장은 이에따라 농림해양수산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연구, 심의

등에 대해서 국회상임위원회와 연계해 효율적인 당 정책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공동 여당인 자민련의 정책위원회에서 손정식 회장이 수산분야의 정책개발 입안 등 중대한 업무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러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바 있지만 IMF사태 이후 가장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한가지를 들자 하면 아무래도 귀농 귀어 현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로 크게 간격이 벌어진 도시와 어촌의 소득격차는 젊은 이들을 어촌에서 도시로 내몰았고 급기야 수산업을 사양산업이라 간주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특히 소규모 항포구는 실제 어촌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2천여개에 달하는 전국 항포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정항 중심의 장기 어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체계화된 어항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항어촌종합개발 체계적 추진을 촉구한다

지금 그들이 어촌으로, 농촌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대로 서게 되는구나 하는 기대감까지 갖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살기 어려워진 도시생활을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탈출구로 어촌과 농촌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말 할 것 없이 그동안 협회가 주장해 온 내용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질의였다.

앞서 말한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이 어촌으로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언젠가 그들은 또다시 떠날 것이고, 어촌은 또다시 몰락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의 어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도시로 떠난 어촌의 젊은 이들이, 어업인들이 다시 어촌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할 유인책은 없는가 자꾸만 곱씹어 보게 된다.

결국 작게는 이들의 삶의 기반을 확충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크게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항어촌종합개발사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어촌에 뿌리를 내려 살게 만들 수 있는 묘안이란 도시 못지않은 여건을 조성하여 삶의 환경을 높이는 길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방안은 어항어촌종합개발과 궁극적으로 연관지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정어항을 확대하여 항간거리를 단축해야 한다. 둘째, 어항예산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대폭 증대되어야 한다. 셋째, 어항개발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어촌은 어항을 중심으로 종합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어항협회가 창립 이래 줄곧 주장해 온 어항어촌종합개발이 어찌면 IMF체제 아래 우리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면 지나친 주장이 될까.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동안 수없이 반복을 거듭하며 협회가 주장해 온 내용이지만 아직껏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28일 제198회 정기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특히 이우재 의원(한나라당·서울 금천)은 이에 관해 매우 의미있는 질문을 했다.

IMF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자각시키고 또한 거꾸로 기회를 부여한 부분도 없지 않다. 현재 상황은 수산업의 재도약 발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기회일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어민소득증대, 어촌개발사업은 어업의 중심인 어항개발 등과 분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항개발, 낙도보조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투자종합관리 시스템 속에서 운영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어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2차 대전 잿더미에서 수산대국으로 우뚝 선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IMF의 황량한 벌판에서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한 번 세워보자.

그는 또 과거의 어항은 어선의 안전수용과 생산의 전진기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어항의 이러한 기능 외에도 해상물류, 교통의 중심, 어촌 관광기능 등이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어항개발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것은 어항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됨을 새삼 상기시키고 싶다.

내년 어항시설 사업 조기발주

전체사업 80% 3월까지 집행

내년도 어항시설사업의 80%가 1·4분기중에 조기 발주된다.

해양수산부는 침체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풍남항건설공사 등 33개 제1·3종어항에 1천1백억원 규모의 공사를 내년 3월안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내년도 어항시설사업 규모는 총 49개 항에 1천3백19억원으로 1·4분기 집행공사는 전체사업의 80%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예년의 경우 전체어항사업의 30% 가량을 1·4분기중 집행해 왔으나 국내경기사정을 감안, 태풍진로권에 위치한 3종어항과 대형 1종어항을 중심으로 발주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전국 지방청별로 조기발주를 위한 현지조사 및 설계 등 사전준비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는 어항별 설계서작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 시설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고용증대 효과가 연간 약 3천4백명(연인원 85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수산부는 또 지난 10월에 신규지정고시한 17개 1·3종어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설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오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기로 했다.

이와함께 2종어항 3백53개 항은 2010년 완공목표로 개발을 추진기로 했으며 1·3종어항중 종합기능대상항 21개 항은 2005년까지 전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현재 시행중인 98년 어항시설사업은 10월말 현재 전체공정이 8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9월 2차추경예산편성시 추가된 2백억원 규모의 공사도 모두 집행돼 연내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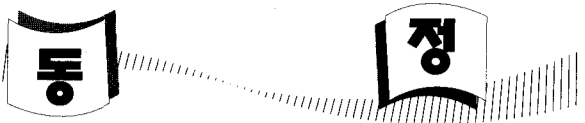
2002년까지 SOC투자 집중추진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02년까지 집중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추진하되 교통수단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투자효율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최근 '중기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정책제시'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안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갈 방침인데 특히 성장잠재력 확보 및

경기활성화 효과가 높은 SOC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우선순위의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계속비제도의 활용 등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용역보고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투자의 구조를 다양화해 권역별 종합적 수송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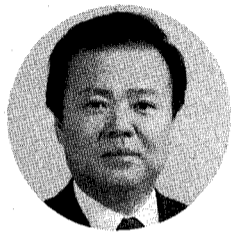


남극과학단 월동연구대 발대식에 참석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2010해양엑스포' 심포지엄에 참석, 10일에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열린 제12차 남극과학단 월동연구대 발대식에 참석, 이어 김대중 대통령 중국방문 수행차 출국.



孫井植 한국어항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11월5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2010 해양EXPO' 유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13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제7차회의에 참석, 20일에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회 농어촌청소년대상 시상식에 참석, 이어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월해수산상 시상식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1월16일 무역회관 3층에서 개최된 서울 국제농수축산 기계박람회에 참석.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11월13일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해양수산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제7차회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1월2일 광주문예술 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민의날 기념행사에 참석, 5일에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광주전남 지역본부 창립6주년 기념식에 참석, 10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대의원 총회에 참석, 이어 한국사립

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이사회에 참석, 23일에는 제13회 아시아경기대회 참가 한국대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 25일에는 올림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98자황컵 체육대상 시상식 및 체육기자의밤 행사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1월10일 제14회 송원문예백일장 시상식을 거행하고 장학금을 전달, 17일에는 교회 출판기념회를 개최.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1월16일 제주도 성산포항 공사현장에 출장.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11월17일 세종문화회

관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 19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조찬세미나에 참석, 27일에는 한국정책연구원 주관 조찬세미나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1월2일 광주문예술 회관에서 열린 광주시민의날 기념행사에 참석, 4일에는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공제 조합 운영위원회에 참석, 6일에는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통일문제 대토론회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방의원 간담회를 개최, 24일에는 건설산업연구원 이사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1월11일 해남 양촌재 농업용수 공사현장에 출장, 17일에는 경기도 여주 통합상수도 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

회사 회장은 11월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통일안보 강연회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 자문위원연찬회를 개최, 27일에는 한국정책연구원 주관 조찬세미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1월9일 여수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서기관 승진 △원양어업담당관실 김동주 △어업진흥과 김이운 △어업진흥과 이경일

주소 변경

▲주식회사건화엔지니어링은 최근 함만부 사무실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13번지(성원빌딩 2층)로 이전했다.

▲이수연씨(주식회사LG텔레콤 상무이사)는 최근 자택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111 한솔마을 LG아파트 205동 1204호로 변경했다.

▲이홍식씨(중앙대학교 교수)는 최근 자택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7번지 탑마을백산아파트 606동 1801호로 변경했다.

▲김규한씨(관동대학교 교수)는 최근 자택주소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신아파트 127동 1206호로 변경했다. 전화번호 : (0342) 706-7981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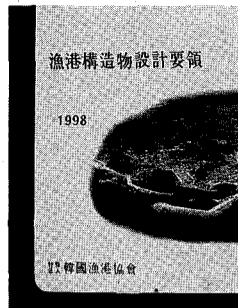
▲안성봉씨(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의 장남 철환 군이 지난 11월7일 서울 상록서관에서 화축을 밝혔다.

▲김성훈씨(본회 어항906호 선장)는 오는 11월 29일(일)

11시50분 부산 새마당예식장 2층에서 화축을 밝힌다.

신간안내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어항구조물 설계요령을 발간했다.



본 책자는 지난 96년에 협회에서 발행한 '어항구조물 설계기준'에서 다루지 못한 설계실무상 문제점의 해설을 보완하여 초보자도 어항설계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성은 어항구조물 설계기준과 같이 총론, 설계조건, 기초, 외곽시설, 계류시설, 수역시설, 기타시설 등 총 7편으로 구분하여 해설을 수록하였다.

구입문의 : 본회 기술개발부(3673-2851-3)

판매가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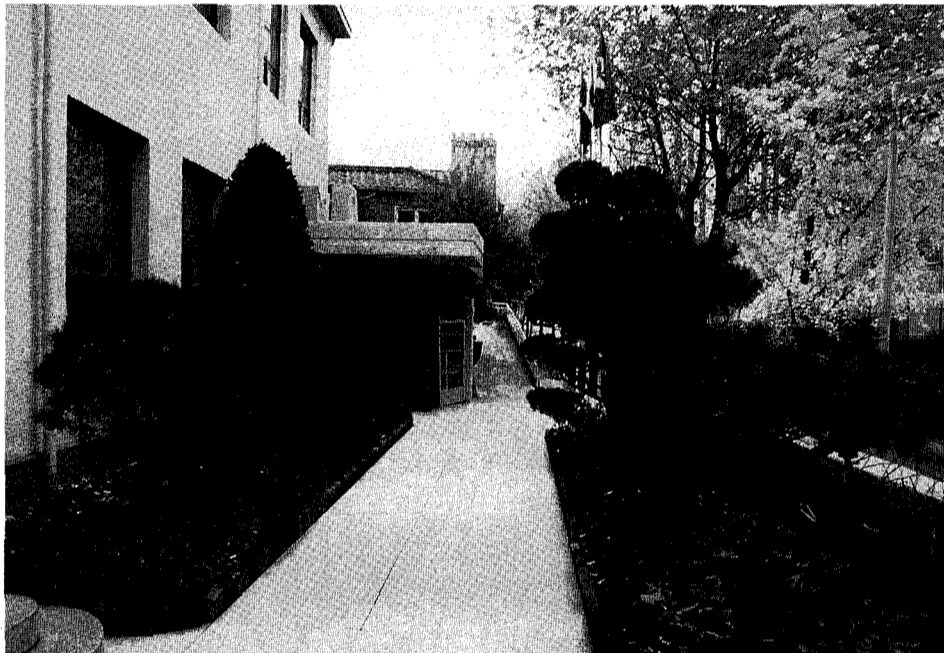
회원가입

▲홍근순씨(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

회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동광건설주식회사(사장 황금주)
- 개인 ▲강영무씨(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한국어항협회는 최근 근무분위기 개선을 위한 청사 환경미화사업의 일환으로 정원조경을 했다. 수종은 향나무(1수), 주목(2수), 소나무(5수)로 모두 8수이다.

하도급의무제도 연내 폐지

건교부 규제 699건 정비위한 법개정 착수

연내 10억원이상의 공사를 수주받은 일반건설업자가 20%이상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 하는 하도급의무제가 폐지된다.

또 건설업종간의 영업범위가 완화되고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에도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백99건의 건설교통분야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하고 이들 규제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45개의 법률과 41개의 시행령 및 규칙 등 총 86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법률의 경우 일괄적으로 가칭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법률안을 마련,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기술분야에서는 신규 교육을 제외한 보수교육의 법적의무화 폐지, 건설기술자 신고의무 폐지, 건설기술

자 자격기준 완화 등 18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6건의 규

책임감리 대상공사 격감 전망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당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책임감리 대상공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5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 공사로 축소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2천4백55건에서 1천2백89건으로 47.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부가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에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자체 여건에 따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감리를 할 수

를 개선하는 등 총 34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대상공사 축소폭은 이보다는 적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감액혜택 시공자에도 귀속케

입찰방법 다양화 추진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노력과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입찰 및 계약방식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비의 20%를 줄이기 위해 구성된 공공사업 효율화 추진단을 통해 자유선택형·공기단축형·성능발주형·기술제안형 등 다양한 입찰 및 계약방식의 도입을 검토, 관련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공공사업

정부는 최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의 공항, 철도, 항만 등 주요 22개 공종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 축소키로 하고 법제처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계약방식을 일괄 확정방식에서 유인가격으로 전환해 공사비 감액혜택이 시공자에게도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자유선택형 입찰의 경우 발주자가 제시한 복수의 설계안을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해 응찰하는 입찰방

식으로 복수설계에 따른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각 공법사이의 장단점과 업체별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합한

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김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항만공사 조기발주 1·4분기중 70% 집행키로

해양수산부는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항만공사의 70%를 1·4분기중 조기발주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및 고용증대를 위해 부산신항 방파제 축소공사 등 신항만건설사업을 비롯한 총 69건, 4천2백30억원 규모의 항만공사를 내년 1·4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예년의 경우 전체 항만사업의 30% 가량을 1·4분기중 집행해 왔으나 국내 경기 사정을 감안, 유지보수공사를 제외한 일반공사의 집행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양수산부는 전국 지방청에 조기발주를 위한 현지조사 등 사전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연말까지 설계서 작성을 완료, 내년 3월까지 전체사업의 70%를 발

주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항만건설사업의 조기집행으로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고용증대효과가 연간 약 8천5백명(연인원 2백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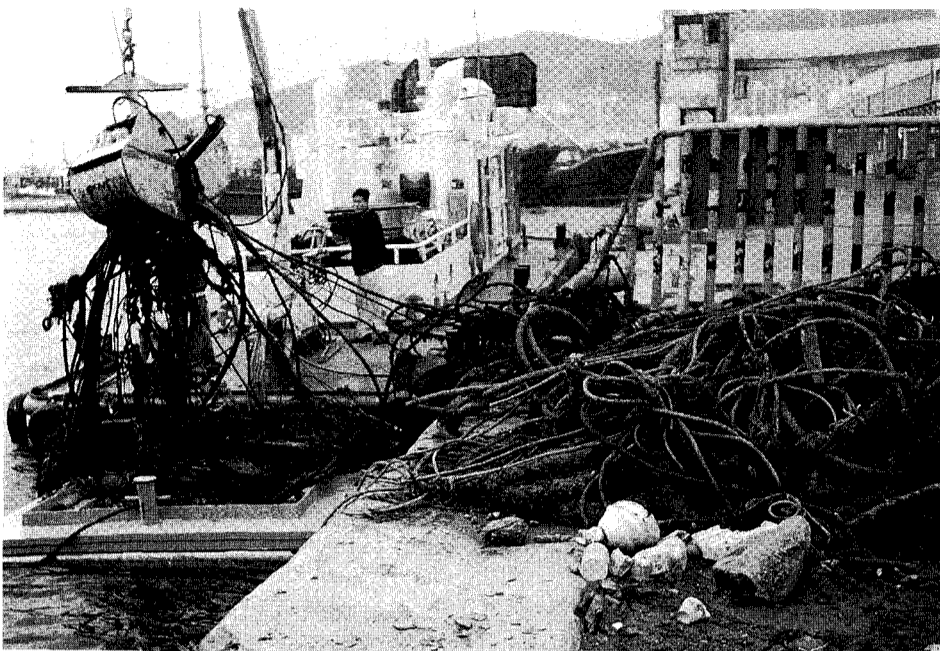
내년 1·4분기 집행예정인 주요항만공사의 시설내역을 보면 부산신항 방파제 및 호안축조공사의 경우 8백18m의 방파제를 건설하는데 총 3백77억원의 사업비를 들일 예정이며, 인천북항 투기장, 포항영일만 방파제, 목포신외항 진입도로 등 신항만 관련공사에 모두 9백74억원의 공사비를 배정했다.

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 2단계 준설공사에는 2백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했으며 울릉도 사동항, 서귀포항 등 지역항 개발사업에 총 5백8억원의 공사비를 들이기로 했다.

올 한해 오폐물 79만4,150kg 수거

어항청소선 '바다환경보호캠페인' 도 큰 성과

한국어항협회가 관리 운영하는 어항청소선 7척이 올 한해동안 제1·3종어항 및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에 4백73일간 출동, 연 1백18개 항에서 부유물 18만7천2백50kg, 침전물 44만8천9백kg, 항행장애물 15만8천kg 등 총 79만4천1백50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한국어항협회는 올 한해동안 제1·3종어항 및 어선이 주로 이용하는 항만과 제2종어항 등 연 118개 항에서 총 79만4,150kg의 오폐물을 수거했다. 사진은 여수 국동항에서 항내 침전물을 인양하고 있는 어항청소선 904호

협회는 지난 95년 어항청소선 인수후 단 1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용하고 있으며, 그 동안 경험·기술의 축적과 함께 전국 연안 시·군 및 일선수협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최소의 인원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7월20일부터 10월말까지 어항청소선이 펼친 '바다환경보호캠페인'은 바다환경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 어항청소선 승선원과 협회 홍보지를 통해 어항환경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청소실적은 다음과 같다.

△어항901호(군산 소재) : 외연도, 홍원, 어청도 등 16개항에서 15만3천3백50kg
△어항902호(목포 소재) : 서거차, 서망, 어란진 등 11개항에서 4만1천2백50kg △어

항903호(고흥 소재) : 녹동, 풍남, 소안 등 18개항에서 8만3천6백kg
△어항904호(여수 소재) : 미조, 국동, 삼천포 등 19개항에서 13만4천5백50kg
△어항905호(통영 소재) : 능포, 구조라, 외포

등 24개항에서 8만4천4백kg
△어항906호(포항 소재) : 죽변, 후포, 정자 등 10개항에서 19만8천kg
△어항907호(주문진 소재) : 대진, 거진, 삼척 등 20개항에서 9만9천kg 등이다.

설계·감리용역 입찰기회 확대 실적배점 줄어 신규업체 유리

조달청이 집행하는 설계 및 감리 등 용역부문의 입찰 참가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조달청은 자체운용중인 설계 및 감리용역부문 업체 선정 평가기준중 설계예술성 및 실적 등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폭을 조정, 지난 5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가 상위개념인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9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을 입법예고중인 가운데 조달청이 이처럼 자체 기준을 먼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은 법개정 이후 자체기준을 개정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일감부족 사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설계 및 감리용역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축 및 토목부문의 경우 유사용역수행실적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는 종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간에 최고 8점까지 차이가 났지만 앞으로는 4점 이내로 간격이 좁혀지게 되며 건축부문에 적용되던 설계예술성 항목의 점수도 지급까지는 최대 4점까지 차이가 났으나 앞으로는 2점으로 그 폭이 줄어들게 됐다.

또 재정상태에 대한 평가 점수도 종전에는 최대폭이 2점씩 벌어졌으나 개정기준에서는 1점으로 좁혀졌다.

특히 새 기준에서는 종합 점수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에게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줌으로써 전체 참여업체중 약 70%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업체간 경쟁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그러나 이 경우 참여업체가 15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들 참여업체 모두에게, 그리고 종합점수 90점 이상인 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15위업체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 건설기술자 겸직금지 등도 폐지해 영업활동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정부출연

기관 형태로 운영중인 수도권신공합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으로 개편, 공공건설에 외자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불공정계약관행 제거키로

건설교통부는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민·관 간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제거, 대등한 동반자관계를 정립키로 했다.

또 건설사업관리를 적극 활용해 사업방식을 선진화하고 민간의 창의력에 바탕을 둔 탄키와 대안입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적정한 사업시행 절차의 확립을 위해 사업의 기본구상단계부터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사업시행단계까지 전과정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조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

가시간, 할인율, 비용산정 등 타당성 조사의 각 단계별 조사항목과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사업시행 여부 및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판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만들어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한 용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LCC(Life Cycle Cost)분석기법을 개발, 대규모 SOC사업부터 시범적용키로 했다.

또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개선을 위해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완공위주의 예산편성과 집중투자를 도모하고 턴키 등 대규모 장기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비율을 늘려 사업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SOC투자가 최대의 고용창출 단순노무직 실업구제에 큰 효과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는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에서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실업자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노무직에 대한 실업문제를 해소키 위해서는 SOC투자를 조기 집행, 고용과급효과가 단기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민간가계부문을 포함하는 산업연관기법을 활용하여 99년도 SOC투자의 직업, 학력 및 성별 고용창출효과 분석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있는 12조7백50억원의 SOC투자는 전체산업에 50만3천명의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종에 대한 신규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에따라 내년도 SOC투자를 가급적 조기 집행하여 단기간에 실업자 구제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 산업의 직업별 고용창출효과와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70%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SOC투자의 학력별

건설업체 자율경영 활성화 도모

정부는 건설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총 3백60건의 규제를 연내 폐지 또는 완화해 건설업체의 자율적 경영을 적극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총 38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관련 규제개혁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

고용창출효과는 고졸이 23만4천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졸이하(17만명, 33.7%), 대졸이상(10만명, 19.9%)순으로 분석했다.

로 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개혁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해외건설업 등록제 폐지 등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와 주택전매제한 완화, 토지거래신고제 폐지, 토지거래허가대상 축소 등 국민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포함됐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겸업제

행복한 생활설계를 위한 저축과 폭넓은 위험보장을 동시에!

▶수업공제



수업공제

높은 수익률 보장

슈퍼저축공제는 적립부분 순공제료를 「이 공제의 약관대출이율 -1%」로 분리적립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생활설계

공제기간을 2년, 3년, 5년, 7년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으므로 자녀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생활설계가 필요합니다.

재해사고시 대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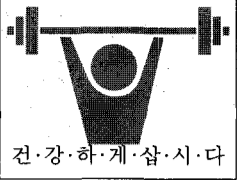
재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와 사고시점까지 적립된 적립금액을 지급해 드리므로 더욱 큰 보장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입 안 내

- 가입연령 : 만 15세~계약 만기연령 70세
- 가입한도 : 500만원~1억원(100만원 단위)
- 공제기간 : 2년, 3년, 5년, 7년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수협공제 상담

- 수협중앙회 공제사업부
- ☎ : (02)240-2865~6, 2871
- 전국 수협점포



과일의 당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막아준다

외국 속담에 '아침 과일은 금(金)'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아침식사 때 과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뜻인데 사실 호텔같은 데서 나오는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과일 혹은 주스가 있다. 일본의 아침식사에서 결코 볼 수 없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의 경우 저녁때 와인이나 마시거나 식후에 브랜디나 위스키를 마시거나 하는, 술과 저녁식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저녁식사때 마신 술의 악영향을 과일에 의해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줄여보자는 의도이다.

외국에서는 옛날부터 알코올 그 자체가 몸에 좋지않다는 설이 있었다. 알코올이 간장에 있어서는 유해한 성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반해 일본에서는 알코올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면 술을 마실 때 충분히 식사를 하지않으면 특히 단백질 섭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좋지않다는 설(영양 장애설), 또 알코올 섭취에 동반되는 식사의 기호변화 즉 지방을 좋아하는 식사내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설(칼로리 불균형설)이 있다.

이것은 알코올이 1그램당 7 칼로리의 고 칼로리이고 아미

노산이나 비타민의 소요량은 많기 때문에 콜린이 결핍상태가 되어 간장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그것만 고친다면 술은 백약의 으뜸이라고 하는 견해가 강해졌다.

생활 속에서 간장을 지키려고 하는 발상이 생길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알코올 그 자체가 독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식사때 과일을 먹는 것은 소위 생활의 지혜로서 사람들 사이에 정착했던 것이다.

과일의 당분은 술에 취하게 하는 요소인 알데히드라는 것을 분해해서 혈중의 알코올 농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과일의 비타민류는 소모된 간장에 영양을 보급한다.

또 전날 술로인해 피로해진 위에 있어 과일의 산미는 식욕을 돋구는 효과와 함께 중요한 영양섭취를 위한 공복감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밤에 술을 마셔서 약해진 간장을 아침에 과일로써 강화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은 원활한 직장생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몸을 따뜻하게 덥혀줌으로써 아세트 알데히드라는 숙취의 원인을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은 숙취에 대단히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7) 준 설

백호우선은 준설중의 선체고정을 스퍼드로 하고, 선체폭과 같은 정도의 준설폭으로 준설하며 후진이동한다. 이동은 스퍼드를 들고 앵커를 이용하여 한다. 기타는 그레브준설과 같다.

- (8) 운반, (9) 투기, (10) 준설완료 인입, (11) 오락방지막 철거
- (12) 회항은 그레브준설과 같다.

2.5 시공관리

준설공사의 시공관리는 공정관리, 위치와 깊이의 확인, 오락관리, 규격관리이다.

(1) 공정관리

준설작업은 계획과 실시의 관계를 토랑 및 면적 등의 공정관리도표를 작성하여 공사의 진척상황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공기내에 경제적으로 완료시키기 위하여, 펌프 준설공사에서는 펌프선의 운전시간을 가급적 연장하고, 또한 재시공이나 낭비가 없는 시공이 되도록 항상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고, 교환부품의 예비, 수리기계의 적절한 준비를 하여 고장, 정비로 인한 휴지시간을 적게하며 특히 효율적인 운전이 되어야 한다.

그레브준설공사에서는 그날 그날의 준설토랑이 계획공정대로 진척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정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준설선을 증척하거나 대형화하여 능력을 올리는 등의 조치를 미리 할 필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5)

第2章 浚渫工

요가 있다.

암초지역에서는 성계, 전복 등의 양호한 어장이 많고, 해안준설의 경우에는 공사에 앞서 이들 수산동물 이동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자와의 협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2) 시공위치와 깊이의 관리
시공위치나 준설깊이가 부정확하면 너무 파거나 파고도 잔토가 있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위치나 준설깊이를 적시에 확인해야 한다. 시공위치의 확인은 미리 설치한 부표, 장대, 고정입표 또는 건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육지에서 원거리의 장소에서는 전자측위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펌프준설공사에서의 준설깊이의 확인은 양수표를 보면서 상하하고 있는 조위를 고려하여 소정의 수심으로 준설하도록 한다.

그레브준설공사에서는 통상 양수표를 보면서 레드맨의 지시에 따라 굴착을 하고 선박을 이동하는데, 레드 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준설구역의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굴적측량은 보통 10m간격 정도로 음향측심기로 관리측량을 하고, 공사의 진척관리와 함께 파고 남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오락관리
준설작업은 오락의 발생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는 오락방지막, 오일펜스 등 오락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8.2 오락방지막공 참조).

준설전과 준설중의 오락조사를 하여 지역의 환경기준을 지키도록 한다.

그레브선에 의한 오락방지에로서는 선박의 전면에 그림 2.3.4에 도시한 바와 같은 철제의 틀을 설치하고, 그 틀안에서 준설을 하여 오락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4) 규격형관리
기성형의 확인측량은 원칙적으로 음향측심기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준설작업선이 있는 사이에 한다.

준설공의 규격형 관리항목과 그 허용범위는 표 2.5.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2.5.1 준설공의 규격형 관리기준

공종	관리항목	측정방법	측정밀도	측정단위	결과정리방법	허용범위
준설(토사) (암반)	수심	특기사항서의 검측방법에 의한다.	특기사항서에 의한다.	10cm	평면도에 실측치를 기입하여 제출. 단면도는 감독자가 제시할 때 작성하여 제출	+0 - 규정하지 않는다. 또는 특기사항서에 의한다.
	비탈면	특기사항서의 검측방법에 의한다.	측선간격은 특기사항서 또는 감독자의 제시에 의한다.	10cm	동상	동상

연말정산 포인트 7가지

형제 자매 교육비 인원제한없이 공제

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상품 활용

개인연금 장기주택저축 年불입액 40%까지 공제

▼개인연금=72만원 한도내에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연금지급은 55세부터 가능하다. 은행의 개인연금 신탁은 배당률이 연13%안팎으로 이자소득도 짝짤하다. 단 가입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당하고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게돼 손해가 크다.

▼장기주택마련저축=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저축기간은 7년이상, 금리는 연 10~11% 수준,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분은 추징당한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가입자도 72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상품은 연간 납입액 기준으로 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한도가 적어 자동차보험 납입영수증 하나만 제출해도 대부분 50만원의 한도가 찬다.

▼근로자주식저축=을 연말까지 판매하는 증권사 상품으로 저

축액의 5.5%를 세액공제 한다. 저축액은 연간 총급여액의 30% 이내와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이며 저축기간은 1년이상, 예컨대 1천만원을 예치하면 55만원의 세금을 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연말정산 투자상품이다. 주식투자를 하지않고 그냥 놔두더라도 연 5%의 이자가 나온다.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분을 추징한다.

2. 함께 사는 가족은 모두 공제대상

부양가족중 경로우대자 1인 50만원 추가공제
가족 1인당 공제한도는 1백만원, 배우자 형제자매 입양자 자녀(미혼) 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 등 부양가족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단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인 경우 남자는 만 60세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양가족 가운데 경로우대자(만 65세이상)와 장애인인 있으면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된다.

3. 공제서류 제출은 12월말까지

올 한해동안 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납입영수증 등 각종 근로소득세 공제서류를 잘 챙겨서 12월말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제청은 내년 1월 월급 지급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해 준다.

4. 배우자 교육비도 공제대상

유치원 교육비 年70만원 소득공제
형제 자매는 인원 제한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낸 교육비도 공제대상이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유치원(관인 유치원)이 1인당 연간 70만원, 초중고생은 무제한, 대학생은 2백30만원, 해외에 유학을 보낸 자녀의 학자금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5. 약국 영수증은 약사가 서명한 것만 유효

年소득 3%넘는 의료비 최고 1백만원 공제, '약'은 약사서명 있어야
연간 소득의 3%를 넘는 의료비는 최고 1백만원까지 공제된

다. 단 약국 영수증은 약사가 환자 이름 병명을 쓰고 서명 날인한 것만 인정한다. 건강진단이나 성형수술 보약 등 질병과 직접 관련없는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6. 수재의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국방연금-수재의연금 전액 소득공제
국방연금 수재의연금 국가지 방자치단체 기부금은 전액 소득

공제 된다. 또 상당 교회 사찰에 낸 헌금, 학교 장학재단 학술단체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연간 소득의 5% 내에서 공제 된다.

7. 올해 재취업한 사람은 합산해 정산

올해 재취업자는 전 직장 것과 합쳐 정산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사본'을 떼어 현 직장에 제출, 합산해 연말 정산한다. 합산하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연말정산 금융상품

상 품	취급금융기관	가입대상	저축한도	특 징
개인연금저축	전 금융기관	만 20세이상 거주자	분기당 3백만원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 ·사업소득자도 공제가능 ·5년내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분 추징
장기주택마련저축	은행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주택소유자	월 1백만원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 ·5년내 중도해지하면 소득공제분 추징
청약부금청약저축	주택은행	·부금:세대주 ·저축:무주택 세대주	·부금:월3만~50만원 ·저축:월2만~10만원	·소득공제(불입액의 40%로 최고 72만원)
근로자주식저축	증권사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2천만원	·세액공제(저축액의 5.5%)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보장성 보험 상품	생보 손보사	개인		·소득공제(최고 50만원)

생활경제

생활경제